ASAN REPORT

시진핑 3기의 중국 정치: 중국공산당 집단지도체제의 변화와 함의

이동규 2024년 4월



Asan Report

시진핑 3기의 중국 정치: 중국공산당 집단지도체제의 변화와 함의

이동규 2024년 4월



아산정책연구원

우리 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올바른 사회담론을 주도하는 독립 싱크탱크를 지향합니다. 특히, 통일-외교-안보, 거버넌스, 공공 정책-철학 등의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도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함으로 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및 번영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외교와 유관 분야 전문가를 육성해 우리의 미래를 보다 능동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저자들의 견해입니다.

저자

이동규

이동규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이다. 한국외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국제지역 대학원에서 국제지역학 석사 학위를, 중국 칭화대학(淸華大學)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외대 글로벌안보협력연구센터 연구위원(2015~2020)을 역임했다. 연구 분야는 중국정치외교, 한중관계, 동북아안보 등이다.

목차

요약	06
I. 들어가며	08
Ⅱ. 중국공산당 집단지도체제 1. 집단지도체제의 형성 배경 2. 집단지도체제의 주요 내용	10 10 13
Ⅲ. 시진핑 3기와 집단지도체제의 변화 1. 20차 당대회: 시진핑 1인 체제의 도래 2. 2023년 양회 인선과 기구 개편: 시진핑 1인 체제의 제도화	19 20 24
IV. 시진핑 1인 체제의 대내외적 함의 1. 대내적 함의 2. 대외적 함의 3. 한국에의 함의	32 33 36 39
V. 나가며	45
참고무현	47

그림

[그림 1] 2023년 양회에서 발표한 당과 국가기관 개편 내용	27
$rac{H}{L}$	
[표 1] 제20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명단 ———————	21
[표 2] 시진핑 3기 중국 국가기관별 주요 지도자 인선	25
[표 3] 시진핑의 공식 직위	30

요약

2022년 10월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이하 20차 당대회)와 2023년도 3월 양회에서 시진핑(習近平)이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국가주석으로 재선출됨에 따라 시진핑 3기가시작했다. 이에 따라 '칠상팔하(七上八下: 67세 이하는 유임, 68세 이상은 은퇴하는 중국공산당의 세대교체 방식)' 등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관례가 폐기되고 시진핑 1인 체제가 형성됐다. 이렇게 개혁개방 이후 30년 넘게 지속됐던 정치적 관례가 변화함에 따라 중국 정치의 예측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졌다. 시진핑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마오쩌둥(毛擇東) 시기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 마오쩌둥이 주도한 경제부흥운동으로 중국의 현실을 무시하고 무리한 공업화를 추진함으로써 실패한 운동)과 같은 정책적 폐단이 발생할 위험성도 높아졌다. 시진핑 개인의 시대 인식과 정치적 야망을 기반으로 중국의 대내외 정책이 결정되고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서구와는 차별된 '중국 특색'의 대내외 정책이 강화되고 중국 사회는 더욱 경직될 수도 있다.

시진핑의 3연임이 중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본 리포 트는 2장에서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이 추진했던 정치개혁의 배경과 그 과정에서 형성 된 '집단지도체제(集體領導; Collective Leadership)'의 내용을 살펴본다. 대약진운동, 문 화대혁명(文化大革命) 등 최고지도자 1인에게 정치권력이 집중되었던 마오짜등 시기에 발생했던 사회 혼란을 방지하고 중국공산당의 통치 정당성과 개혁개방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공산당은 개혁개방과 함께 '집단지도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개혁을 추진해왔다. 그 과정에서 중국공산당은 임기 제한, 은퇴 제도, 인사제도 개혁 등을 도입해 권력 독점을 방지할 뿐 아니라 권력 승계와 세대 교체를 보장하고 정치 엘리트 및 파벌 간 경쟁과 합의에 따른 정책 결정 방식을 구축하고자 했다. 또한 서구적 가치의 유입과 확산, 다양한 계층과 이익집단의 등장으로 중국 사회 내 정치개혁과 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집단지도체제를 '중국식 민주', 혹은 '정치 제도화'라는 이름으로 중국 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활용해 왔다.

3장은 2022년 20차 당대회와 2023년도 양회에서 나타난 중국공산당과 국가기관의 주요 인선 및 기구 개편 내용을 분석해 시진핑 3기에 집단지도체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고찰 한다. 20차 당대회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시진핑 측근들이 대 거 포진했고 시진핑이 속한 태자당(太子黨)의 반대 파벌로 알려진 공산주의청년단(共産主 義靑年團) 세력이 크게 쇠퇴하면서 시진핑을 중심으로 하는 수직적 위계질서가 형성됐다. 또한 2023년 양회의 인선과 기구 개편을 통해서 시진핑 1인 체제를 제도화하려는 모습이나타났다. 시진핑은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70후(70後: 1970년대생) 간부들의 충성 경쟁을 유도하는 등 자신의 정치권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세대 교체를 추진하는 모습도 보인다. 결론적으로 시진핑 1인 체제 구축으로 집단지도체제의 중요한 축이었던 정치 엘리트 간, 파벌 간 상호 견제와 합의에 기반한 정책 결정 과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게 됐다.

4장은 시진핑 1인 체제가 중국 국내외 정책과 한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전망한다. 시진핑 3기 정부는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중국이 강해지고 중화민족이 부흥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하지만, 중국이 직면한 대내외 상황은 녹록치 않다. 경제성장, 사회 안정 등 기존의 업적 정당성(performance legitimacy)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시진핑 3기를 시작한 시진핑은 시진핑 1인 체제를 합리화하고 통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내적으로는 정치사상 교육과 사회통제를 강화할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이 시진핑의 통치하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강한 중국'의 실현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는 한중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시진핑 정부가 시진핑의 권력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당의 영도, 사회통제, 정치사상 교육을 강조함에 따라 한중 간 체제와 가치의 이 질성은 더욱 부각되고 한중 양국 국민 간의 상호 인식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중국의 국내정치적 변화가 중국의 대내외 정책, 중국인의 인식, 한중관계, 글로벌 현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가치를 새롭게 산정해야 한다. 둘째, 시진핑 3기 정부가 공세적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 동맹인 한국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중국의 다양한 회유와 압박 조치를 상정해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중국에 대한 경제의 존도를 지속적으로 줄이는 한편, 유사입장국들(like-minded countries)과 함께 중국의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중국과의 외교적 소통을 확대하고 정례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국에게 한국이 중국을 의식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한중 양국 정부의 인식과 정책을 이해하고 양국 간 불필요한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한중관계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

I. 들어가며

최고지도자 개인에게 정치권력이 집중되었던 마오쩌둥 시기 중국공산당과 중국은 대약진 운동(1958~1961년)¹, 문화대혁명(1966~1976년)과 같은 사회 혼란을 경험했다. 이와 같은 폐단을 방지하고 중국공산당의 통치 정당성과 개혁개방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공산당은 개혁개방과 함께 집단지도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 과정에서 중국공산당은 임기 제한, 은퇴 제도, 인사제도 개혁 등을 도입해 권력 독점을 방지할 뿐 아니라 권력 승계와 세대 교체를 보장하고 정치 엘리트 및 파벌 간의 경쟁과 합의에 따른 정책 결정 방식을 구축하고자 했다. 개혁개방 이후 서구적 가치의 유입과 확산, 다양한 계층과 이익집단의 등장으로 중국 사회 내 정치개혁과 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집단지도체제는 '중국식 민주', 혹은 '정치 제도화'라는 미명 아래 중국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즉, 중국공산당은 집단지도체제를 통해서 중국사회의 민주에 대한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도 서구적 민주와의 차별성을 유지함으로써 당의 통치를 정당화해 온 것이다.

그러나 2022년 10월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이하 20차 당대회)와 2023년도 3월 양회에서 시진핑(習近平)이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국가주석으로 재선출되고 시진핑 3기가 시작되면서 중국공산당이 구축해 왔던 집단지도체제가 크게 손상됐다. 권력 승계와 세대 교체를 보장했던 임기 제한은 폐기됐고, 시진핑 친정체제가 구축되면서 정치 엘리트들의 견제와 합의에 기반했던 정책 결정 방식도 제한되었다.

시진핑이 집권 이후 자신의 정치권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모습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이미 시진핑이 10년 단위로 권력을 승계했던 기존의 정치관례를 깨고 3연임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20차 당대회와 양회에서 발표된 당과 국가기관 인선 선출 결과는 예상보다 시진핑 개인의 정치권력이 막강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이와 같이 시진핑 1인

^{1.} 대약진운동은 1958년도에 마오쩌둥 주도로 중국에서 시행된 경제부흥 운동이다. 중국은 단기간에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가들을 따라잡기 위해 중국의 산업구조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중화학공업 발전을 추진했지만, 결국 수천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하며 실패로 끝났다. 마오쩌둥은 대약진운동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가주석에서 물러났다.

체제가 형성되고 개혁개방 이후 30년 넘게 지속됐던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관례가 변화함으로써 중국 정치의 예측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졌고 개인의 권력 독점으로 인한 정책적 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졌다. 시진핑 개인의 시대 인식과 정치적 야망을 기반으로 중국의 대내외 정책이 결정되고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서구와는 차별된 '중국특색'의 대내외 정책이 강화되고 중국 사회는 더욱 경직될 수도 있다.

시진핑의 3연임이 중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답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이 추진해 온 정치개혁의 맥락에서 그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리포트는 2장에서 집단지도체제를 중심으로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이 추진했던 정치개혁을 살펴보고, 3장에서 20차 당대회와 2023년도 양회에서 나타난 중국공산당과 국가기관의 주요 인선 및 기구 개편을 분석해 집단지도체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고찰한다. 이를 기반으로 4장에서 시진핑 1인 체제가 중국 국내외 정책과 한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전망한다.

Ⅱ. 중국공산당 집단지도체제²

1. 집단지도체제의 형성 배경

마오쩌둥 시기 중국의 정치권력은 마오쩌둥 1인에게 집중되었고, 중국공산당과 중국 사회는 대약진운동이나 문화대혁명 등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경험했다. 중국공산당은 당과 정부가 일원화된 정치체제하에서 권력이 한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었을 때 어떤 후과(後果)가 발생하는가를 목도했기 때문에 개혁개방 초기 그러한 폐단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개혁을 시작했다.

1981년 6월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이하 11기 6중전회)에서 '건국 이래 당의 약간 역사문제에 대한 결의(關與建國以來黨的若干歷史問題的決議)'가 통과됐다. 이를 통해서 당샤오핑(鄧小平)은 마오 시기의 혼란이 최고지도자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제도적 한계 때문에 야기됐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당샤오핑은 1981년 11기 6중전회에서 권력 독점과 당정(黨政) 일원화를 막는 제도적 개혁을 주장했다. 또한, 1986년 12기 6중전회에서 당샤오핑은 생산력 제고와 4개 현대화(농업·공업·국방·과학기술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당과 정부 관계를 조정하는 당정 분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당 주석제도가 총서기제로 바뀌고, 당 주석이 독점하였던 정치권력을 정치국 상무위원들에게 분산하는 '집단지도체제'가 형성됐다. 또한 권력의 분산, 겸직 금지, 공산당과 국가기관의 분리, 중앙 정부-지방 정부 간의 관계 조정, 공산당 간부 및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입법 및 감독 강화 등의 정치개혁 방안이 실시됐다.³

그러나 1989년 6월 천안문 사태는 이러한 정치개혁의 전환점이 됐다. 당시 중국공산당은 천안문 사태를 중국공산당 통치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인식하였는데, 중국공산당 내 보수파들은 당정 분리를 추진한 정치개혁 때문에 국가 및 사회에 대한 당의 장악력이 약화되었다고 비판했다. 당정 분리 개혁안이 당의 권위와 지위를 약화시키고, 그 결과 중국사회

^{2.} 본 장의 내용은 이동규, 〈중국공산당의 정치개혁은 퇴보하는가: 시진핑 시기 당내 민주의 변화와 지속성〉, 《중국학논총》 제65권, 2020의 일부 내용을 아산 리포트의 성격에 맞춰 수정 및 보완한 것임.

^{3.} 조영남·안치영·구자선, 《중국의 민주주의: 공산당의 당내민주 연구》, 파주: 나남, 2011, p. 31.

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1992년 14차 당대회, 1993년 중국전국인민대표 대회(이하 전인대)에서 장쩌민(江澤民) 총서기가 국가주석직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다시 겸직하며 중국공산당의 당정 분리 정치개혁은 막을 내렸다.

그러나 1990년대 중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상황 때문에 중국공산당은 집단지도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개혁을 계속 추진해야 했다. 당시 대외적으로는 소련과 동유럽권 사회주의 국가가 무너지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 및 대만이 민주화됐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당 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 이후 개혁개방이 더욱 심화됐는데, 이에 따라 자유주의 사상에 기반한 서구 사상과 가치가 중국 사회에 유입되고 사영기업주(私營企業主) 등 중국 사회에 다양한 계층과 이익집단이 등장하면서 민주화에 대한 요구도 증가했다. 4 또한 중국 공산당은 당 내부적으로 삼개대표론(三個代表論) 5을 제기하고 혁명당에서 탈피하여 집권 당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의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고 통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국공산당은 집단지도체제에 기반한 당내 민주를 중국공산당 정치 개혁의 핵심으로 삼았다. 6

장쩌민은 2002년 16차 당대회에서 "당내 민주는 당의 생명이며, 인민 민주에 대해서 중요한 모델이며 견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당원의 민주권리 보장, 당대회 및 당위원회 제도의 완벽화, 체제 및 기제 개혁을 중심으로 당내 민주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2008년 중국공산당이 사회주의문화 건설을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사회주의핵심가치관 (社會主義核心價值觀)"에도 민주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 여기에서 중국공산당이 강조하

^{4.} 이종화, 〈중국의 정치체제개혁과 당내민주의 발전〉, 《신아세아》 16권:1호, 2009, p. 131.

^{5.} 삼개대표론은 장쩌민이 제기한 것으로 중국공산당이 중국의 선진 사회 생산력의 발전 요구, 중국의 선진 문화, 폭넓은 중국 인민의 근본 이익을 대표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여기에서 폭넓은 중국 인민의 근본 이익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중국공산당이 사영기업주 등 자본가 계급을 수용했다고 평가한다.

^{6.} 이민자, 〈중국식 민주와 공산당 체제의 공존〉, 《신아세아》 20권 3호, 2013년, p. 100; 조영남·안치영·구자선, 《중국의 민주주의: 공산당의 당내민주 연구》, 파주: 나남, 2011, p. 47.

^{7.} 江澤民,〈江澤民在中國共產黨第十六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2002.11.08., http://www.gwytb.gov.cn/zlzx/16thCongress/201101/t20110126_1734499.htm.

^{8.} 중국공산당은 2008년 18차 당대회에서 12개의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공표하였다. 그것은 부강(富强), 민주(民主), 문명(文明), 조화(和諧), 자유(自由), 평등(平等), 공정(公正), 법치(法治), 애국(愛國), 겸업(兼業), 성신(誠信), 우선(友善)이다.

는 민주의 의미가 서구식 민주와는 다르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중국은 서구식 민주주의를 인권의 보편적 가치, 언론 자유와 시민 참여 등의 서구적 가치와 함께 중국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⁹ 오히려 서구의 대의민주주의가 표방하는 헌정, 선거, 다원화 등의 가치가 민주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더 넓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¹⁰

서구식 민주가 다당제와 선거에 기초한 대표 선출에 기반하여 '누가 다스리느냐'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중국의 민주는 그보다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민주는 '민주집중제(民主集中制)'¹¹ 내에서의 경쟁과 민주적 운영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의 구성원이면서 사회구성원의 대표인 공산당원들이 합의와 토론, 투표, 다수결 등 민주적 제도에 따라 당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나 민주집중제의 개념을 따라 당내의 소수 정치 엘리트들이 토론과 합의, 조정이라는 민주적 과정을통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중국의 민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국공산당의 정치개혁은 당의 권력 개혁에 초점을 맞춘 당정 분리와는 다르게 내부적으로는 당의 분열을 방지하고 외부적으로는 당의 통치 능력을 강화하는 데에 집중하는 개혁이며, 서구식 민주화를 지향점으로 하는 정치체제의 변화와 개혁이 아닌 당의 권력 및 지위 강화를 위하여 당의 운영 방식과 통치 방식을 개혁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¹²

중국공산당은 집단지도체제를 통해서 엘리트정치에서 나타나는 민주적 제도화와 운영 방식을 강조한다. ¹³ 즉, 중국공산당은 집단지도체제가 정치 엘리트 간의 협의와 타협이라는 민주적인 방식을 통하여 중대 정책이나 인사를 결정하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9. &}quot;China takes aim at Western ideas", *The New York Times*, 2013,08,19., https://www.nytimes.com/2013/08/20/world/asia/chinas-new-leadership-takes-hard-line-in-secret-memo.html.

^{10.} 서구식 민주에 대한 중국학계의 비판은 王紹光, 《民主四講》, 北京: 三聯書店, 2008에 잘 나타나 있다.

^{11.} 민주집중제는 공산당의 조직 운영 방식의 핵심이다. 중국공산당 당장(黨章) 제10조는 민주집중제의 기본 원칙을 개인의 조직에 대한 복종, 소수의 다수에 대한 복종, 하급기관의 상부기관에 대한 복종, 당 전체의 중앙에 대한 복종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공산당원들이 비록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당과 의견차가 있을 경우 개인의 의견을 포기하고 통일된 당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집중제는 당의 통합을 위해 '민주'보다 '집중'에 방점을 두고 있다.

^{12.} 조영남, 《법치와 정치개혁》, 파주: 창비, 2013, p. 31; 이정남, 〈최근 중국의 민주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당내 민주화론을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제10집:2호, 2009, p. 64.

대내외적으로 중국식 민주를 홍보하고 일당 독재에 대한 비난에 대응해 왔다. ¹⁴ 예를 들어, 후안강(胡鞍鋼) 칭화대 교수는 중국공산당의 집단지도체제가 집단영도, 집단정책결정, 집 단책임을 지는 매우 효과적 방식으로 현대국가제도의 혁신이라고 평했다. ¹⁵ 그는 또한 중국 집단지도체제는 집단 분업협력 시스템, 집단승계 시스템, 집단학습 시스템, 집단조사·연구 시스템, 집단 정책결정 시스템으로 이뤄졌다면서, 이 때문에 집단지도체제가 정부 구조, 지식 구조, 정책결정 구조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¹⁶

2. 집단지도체제의 주요 내용

마오쩌둥, 덩샤오핑 등 카리스마 있는 정치지도자가 퇴진한 후에 중국공산당 내 엘리트정 치는 집단지도체제를 형성하면서 견제와 타협의 정치를 시작하였다. 비록 서구식의 대의 민주주의와 같이 대중들의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지는 않지만, 권력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 제한, 나이 제한 등으로 권력 승계와 세대 교체를 관례화했을 뿐 아니라, 그 운영 방식의 측면에서 구성원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과 합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민주적 정치과정을 발전시켜왔다. 다시 말해서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정보 교환을 통하여 정치 엘리트 각각이 가진 정보와 지식의 비대칭성, 불확정성, 불완전성

- 13. 중국공산당의 집단지도체제에 대한 연구는 Zeng Jinhan,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Capacity to Rule: ideology, legitimacy and party cohes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6, pp. 153-180; 조영남·안치영·구자선, 《중국의 민주주의: 공산당의 당내민주 연구》, 파주: 나남, 2011, pp. 91-138; 이민자, 〈중국식 민주와 공산당 체제의 공존〉, 《신아세아》 20권:3호, 2013년, pp. 92-108을 참고하기 바람. 반면, 당내 민주를 중국의 기층 민주주의와 연결한 연구도 큰 관심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Dingping Guo, "The Growth of Intra-party Democracy and Its Implications for China's Democratic Future", Fudan Journal of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7, 2014, pp. 1-19; Hongyi Lai, China's Governance Model: Flexibility and durability of pragmatic authoritarianism, New York: Routledge, 2016, pp. 233-264; 이정남, 〈최근 중국의 민주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당내 민주화론을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제 10집:2호, 2009, pp. 41-71을 참고.
- 14. 집단지도체제가 정치 엘리트와 그들이 속한 파벌 간의 권력 분산, 협의와 타협에 의한 민주적 운영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슘페터(Joseph Schumpeter)가 제기하였던 엘리트 민주주의(elitist democracy)의 한 형태로 보기도 한다.
- 15. 후안강 지음, 성균중국연구소 옮김, 《중국공산당은 어떻게 통치하는가》, 서울: 성균관대학출판부, 2016, p. 199.
- 16. 후안강 지음, 성균중국연구소 옮김, 《중국공산당은 어떻게 통치하는가》, 서울: 성균관대학출판부, 2016, pp. 211-219.

을 상쇄하고, 민주적 토론과 10~1표, 다수결에 따라 정책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민주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17

또한 집단지도체제는 정치 엘리트들 각각이 속한 파벌 간의 견제와 합의를 포함한다. 중국 공산당이라는 하나의 당 안에도 정치적 파벌은 존재한다. ¹⁸ 청리(Cheng Li)에 따르면, 중국 엘리트정치는 크게 두 개의 파벌, 즉 태자당과 공청단이 정치권력은 물론, 사회경제적 지지층과 지역 내 지지층의 이익을 위해서 경쟁하고 있다. 다만, 중국공산당의 통치하에 중국정치 및 국내사회의 안정, 경제 발전, 중국의 위상 제고라는 일치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파벌은 당이 분열하거나 그 권위가 위협받는 한계를 벗어나면서까지 경쟁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당내 양대 파벌의 존재는 과도한 권력이 하나의 파벌이나 개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할 뿐 아니라, 경쟁에서 승리한 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제로섬 게임에서 탈피하여 경쟁과 타협이라는 정치과정을 당내에 구축했다. 보시라이(薄熙來)나 링지화(令計劃)가 숙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그들이 속한 파벌이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하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것이 예라고 할 수 있다. ¹⁹

구체적으로 중국공산당의 집단지도체제는 아래와 같이 임기 제한과 나이 제한에 기초한 권력 승계와 세대교체, 파벌 간의 견제와 타협에 의한 정책 결정 및 당의 운영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1) 권력 승계와 세대교체

당샤오핑 시기에는 정치 원로들의 영향력이 막강했고, 막후에서 그들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비공식정치가 중국정치를 지배했다. 예를 들어, 당샤오핑 시기에는 총서기직도 정치

- 17. 胡鞍鋼,《中国集体领导体制》, 北京: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3, pp. 39-40.
- 18. 각 파벌에 중복되어 있는 정치 엘리트들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파벌을 나누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중국공산당 내의 파벌을 태자당, 중국공산주의청년단, 상하이방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후진타오 이후 장쩌민을 중심으로 하는 상하이방의 세력이 약화됨에 따라, 청리는 중국공산당 내 파벌을 크게 두 개로 분류했다. 상하이방을 흡수한 태자당과 후진타오, 리커창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공산주의청년단, 소위 퉌파이(Tuanpai) 가 그것이다. 이에 대해서 Cheng Li, *Chinese politics in the Xi Jinping era: reassessing collective leadership*,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16, pp. 251-300을 참고.
- 19. Cheng Li, Chinese politics in the Xi Jinping era: reassessing collective leadership,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16, p. 299.

원로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었는데, 당샤오핑, 천윈(陳雲), 리센녠(李先念) 등을 중심으로 한 원로회의에서 1987년 후야오방(胡耀邦)의 총서기직 사직이나 자오쯔양(趙紫陽) 총서기 임명, 1989년 자오쯔양의 총서기직 사임, 장쩌민의 총서기 발탁 등이 결정됐다. ²⁰ 특히, 당샤오핑의 경우 1989년 11월까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만을 유지하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지만 정치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정치 원로들의 영향력이유지된다면 중국공산당의 권력 승계 및 권력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공산당은 임기 제한과 나이 제한을 통하여 정치 엘리트들의 세대 교체와 권력 승계를 관례화하기 시작했다. 임기를 2회로 제한하는 중임제와 소위 '칠상 팔하(七上八下)'²¹라는 나이 제한을 통하여 중국공산당은 주기적인 세대 교체와 권력 승계에 대한 암묵적 관례를 구축한 것이다. ²² 1954년 헌법은 주석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였지만, 연임 가능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많은 정치지도자들이 은퇴하지 않고 종신제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덩샤오핑은 특수한 경력이 요구되는 군사위원회를 제외한 주요 공직에 대해서 임기 제한 규정을 정하였는데, 특히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는 1982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10년으로 제한했다. ²³

이에 따라 장쩌민, 후진타오(胡錦濤)로 이어지는 중국 최고지도자는 5년 주기인 전인대 회기를 2회 거치며 10년간 중국을 통치하고 권력을 후대에 이양했다. 또한, 1982년 이후은퇴 제도가 발전하면서 2002년 제16차 당대회에서 칠상팔하 관례가 더욱 확고하게 세워졌다. ²⁴ 이러한 원칙은 당시 장쩌민이 경쟁관계에 있던 리루이환(李瑞環)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의 퇴진을 종용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여겨졌지만, 결과적으로 중국공산당 지도

^{20.} 자오쯔양·바오푸, 장윤미·이종화 역, 《국가의 죄수: 자오쯔양 중국공산당 총서기 최후의 비밀 회고록》, 서울: 에버리치홀딩스, 2010, pp. 257-286.

^{21.}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등 고위급 진입에 나이 제한을 두는 관행으로 67세 이하인 경우에는 권력중심부에 진입하고, 68세 이상이면 은퇴하는 세대교체 방식이다.

^{22.} 안치영, 〈연령규정과 왕치산의 유임 문제〉, 《관행중국》, 2017년 6월호, 2017, http://aocs.inu.ac.kr/webzine/app/view.php?wp=191.

^{23. 1982}년 헌법 제79조 제3항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은 2018년 중국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폐기됐다.

^{24.} 나이 제한은 덩샤오핑이 1990년에 70세 이상은 당주석을 맡지 않는다고 한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칠상팔하 원칙은 2002년 16차 당대회 기간 장쩌민이 68세 이상인 사람은 국가주석,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장, 국무원 총리, 정치국 상무위원 등 고위직을 맡을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시작되었다.

부의 은퇴와 세대 교체에 영향을 미쳤다. 당시 막강한 정치 영향력을 행사했던 쩡칭홍(曾慶紅)도 이 관례에 따라 2007년에 퇴직했다. 이러한 나이 제한 규정에 따라 1997년 평균 70세였던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임위원의 은퇴 나이는 2002년에 68세로 낮춰졌고, 이에 따라 중국공산당은 서구사회보다 빠르게 세대를 교체할 수 있게 됐다. 25 결국 이러한 관례가 중국공산당 당대회에서 상무위원을 뽑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여겨졌고, 중국공산당은 이를 통하여 젊은 차세대 지도자들을 영입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와 다양한 계층에 대한 당의 적응력을 제고하고 당의 안정을 추구하고자 했다.

2) 견제와 타협

장쩌민은 덩샤오핑의 후계자였지만,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과 같은 정치적 카리스마가 없었고, 그 결과 장쩌민을 중심으로 하는 상하이방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고, 정치파벌 간경쟁구도가 형성됐다. 장쩌민 1기에는 장쩌민, 차오스(喬石), 리펑(李鵬)이 주도하는 삼두체제가, 2기에는 장쩌민과 리펑이 주도하는 이원체제가 형성되었고, 후진타오 시기에는 퉌파이에 속한 후진타오 세력과 상하이방과 태자당을 중심으로 하는 장쩌민, 쩡칭홍 세력이 정치권력을 나눠 가졌다. 26

파벌 간 경쟁구도 속에서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는 어느 한 파벌이나 개인이 독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기보다 상대세력에 대한 견제하에 토론과 합의를 통하여 정책을 결정했다. 후진타오 시기를 보면, 후진타오는 효율적인 당내 정책결정과 업무 분담을 근거로 상무위원수를 7인으로 낮추려 하였지만, 반대 세력이었던 태자당은 공청단의 권력 장악을 우려하며 당내 민주의 확대를 명분으로 이를 반대했다. 27 당시 후진타오가 최고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무위원 9명 중 최소 5인이 태자당에 속해 있었는데, 이는 후진타오나 공청단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없었고 태자당과의 상호 견제와 타협을 통하여 정책을 결정해야 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25.} Zeng Jinhan,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Capacity to Rule: ideology, legitimacy and party cohes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6, p. 161.

^{26.} 조영남·안치영·구자선, 《중국의 민주주의: 공산당의 당내민주 연구》, 파주: 나남, 2011, p. 121.

^{27.} Joseph Kahn, "Politburo in China Gets Four New Members", *The New York Times*, 2007,10,23., https://www.nytimes.com/2007/10/22/world/asia/22china,html,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조화사회론(和諧社會論)'이 아닌 '과학적 발전관'이 중국공산당의 공식지도이념으로 채택된 것이다. 조화사회론은 중국 특색의 전통과 가치를 활용해 급속한 개혁개방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중국사회 내 분열과 혼란을 막고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응집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있었다. ²⁸ 과학적 발전관은 그런 조화사회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자 하위 개념으로 제기됐었다. 후진 타오는 집권 초기 조화사회론을 자신의 지도이념으로 만들려고 시도하였지만, 결국 태자당의 견제에 의해 실패했다. 태자당이 기존의 지도이념에 비해서 창의적인 조화사회론이 당의 지도이념으로 채택되면, 후진타오의 개인적 권위가 더욱 강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결국 두 파벌은 과학적 발전관을 후진타오의 지도이념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²⁹ 과학적 발전관은 발전을 추구해 온 개혁개방 정책을 계승한다는 측면 외에도 서부대개발이나 삼농문제(三農問題: 농업, 농촌, 농민 문제) 해결 등을 강조해온 장쩌민의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공산당의 단결과 정책의 연속성을 중국 대중에게 보여줌으로써 당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데에 유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다

파벌 간 견제의 또 다른 사례는 민주추천회의(民主推薦會)와 차액선거(差額選舉)이다. 이는 파벌 간의 담합이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부적격자를 가려내기 위해 만들어진 지도부 인선제도이다. 민주추천회의는 2007년 17차 당대회 정치국 인선에 도입됐다. 그 과정을 보면,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제출한 200여 명의 정치국원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공산당 제 16기 중앙위원회 위원, 정치원로, 고위직 당정간부 등 400여 명이 비밀투표를 실시하고, 투표결과를 바탕으로 정치국원의 명단이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서 조직과 운영을 합리화하고 제도화하여 당원들의 지지와 참여를 확보하고 당의 통치기반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중국공산당은 1987년 13차 전인대를 기점으로 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차액선거를 도입했다. 그 진행 절차를 보면, 필요한 위원 수보다 더 많은 후보가 참여하고. 후보들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통하여 가장 낮은 표를 얻는 후보가 탈락

^{28.} 조화사회론은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전통적 가치 위에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서 이동규, 〈중국공산당과 현대신유학의 관계: 현대신유학의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제30권:2호, 2015, p. 170을 참고.

^{29.} 조영남·안치영·구자선, 《중국의 민주주의: 공산당의 당내민주 연구》, 파주: 나남, 2011, pp. 127-130.

하는 방식이다. 차액선거는 파벌들이 서로를 견제하며 권력 독점을 방지하는 데에 효율적으로 작동했다. 예를 들어, 1990년대에 장쩌민은 그의 측근들을 중요 기관의 지도자로 발탁하려 했지만, 다른 대표들은 상하이방을 견제하기 위하여 상하이방이 아닌 다른 후보들에게 투표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 결과 1997년 15차 중앙위원회 위원 선거에서는 시진핑이, 2002년 16차 중앙위원회 선거에서는 장쩌민의 경호원이었던 유시구이(由喜貴)가, 2007년의 17차 선거에서는 장쩌민의 비서였던 쟈팅안(賈廷安)이, 2012년에는 리평의 아들이었던 리샤오펑(李小鵬)이 각각 가장 낮은 표를 얻어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했다. 30

^{30.} Cheng Li, Chinese politics in the Xi Jinping era: reassessing collective leadership,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16, pp. 92–93.

Ⅲ. 시진핑 3기와 집단지도체제의 변화

시진핑은 소위 5세대 지도자의 대표였다.³¹ 5세대 지도자는 주로 1950년대 출생자로 사회주의 혁명을 경험하지 않고 개혁개방 시기에 당정 간부를 지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 사고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가졌다고 알려졌다.³² 특히 시진핑은 상하이 등 개방된 연해 지역을 통치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서구에서는 시진핑이 취임한다면, 중국의 정치개혁이 더욱 개방적이고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타났다.³³

그러나 시진핑은 취임 이후 오히려 자신의 정치권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활용된 것이 대대적인 반부패 운동(anti-corruption campaign)이다.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운동이 표면적으로 당정 간부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해 당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장쩌민의 상하이방이나 저우융캉(周永康)의 석유방(石油幇)에 속한 고위급 인사들이 낙마했고 시진핑 개인 권력이 강화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34 2016년 핵심(核心)이라는 칭호가 시진핑에게 쓰이기 시작했고, 2017년 10월 시진핑 제2기가 시작되면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習近平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思想)'이 지도이념으로 중국공산당 당장(黨章)에 삽입되고 2018년 3월 제13기 전인대에서 통과된 헌법 개정안에도 들어갔다. 시진핑의 이름이 삽입된 지도이념이 당장과헌법에 추가되면서 시진핑의 정치적 지위가 마오쩌둥 및 당샤오핑의 수준으로 격상된 것이다. 그간 최고지도자의 지도이념이나 통치사상이 임기가 끝난 후 후대 지도자에 의해서 당장과헌법에 추가되었던 중국공산당의 관례를 생각할 때, 재임 중에 시진핑 본인의 이름이 포함된 지도이념이 당장과 헌법에 들어간 것은 중국공산당 내에서 시진핑의 정치적 권위가 크게 강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이외에도 시진핑은 집권 이후 영도소조 및 중앙정치국

^{31.} 중국 지도자의 세대는 지도자의 출생 시기, 입당 시기, 정치 경험 등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대장정(1934~1936) 전에 입당해 중국공산당 건설에 주도했던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가 1세대 지도자라면, 덩샤오핑과 천윈은 2세대 지도자, 장쩌민, 리펑, 주룽지 등은 3세대 지도자, 후진타오와 원자바오는 4세대 지도자로 분류된다.

^{32.} Cheng Li, "The Emergence of the Fifth Generation in the Provincial Leadership", *China Leadership Monitor* Vol. 6, Spring 2003, pp. 15–16.

^{33. &}quot;Many Urge Next Leader of China to Liberalize", *The New York Times*, 2012;10,21., https://www.nytimes.com/2012/10/22/world/asia/many-urge-chinas-next-leader-to-enact-reform.html.

^{34.} 전세영·강준영, 〈중국 역대 반부패 운동의 특징 연구-시진핑 시기를 중심으로〉, 《중국연구》 제86권, 2021, pp.14-15.

장악, 당정관계의 일원화 등으로 개인 권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35

이에 따라 중국공산당의 집단지도체제가 변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2018년 헌법 개정안은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임 제한을 삭제하여 시진핑의 장기집권 가능성을 열었다. 왕치산(王岐山) 전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2018년 3월 전인대에서 국가 부주석으로 선출되면서 이러한 의구심은 더욱 커졌다. 36 과거 권력 승계 과정을 보면, 장쩌민의 후계자 후진타오 가 1992년 14기 당대회에서 상무위원이 되었고, 후진타오 시기에는 시진핑과 리커창(李克强)이 2007년에 상무위원이 되었는데, 시진핑 후계자 구도가 나타나기는커녕 당시 만 69세로 나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시진핑 측근으로 알려진 왕치산이 정치에 복귀했기 때문이다. 칠상팔하의 관례에 따라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는 시진핑을 포함하여 최소 3명의 상무위원이 교체되어야 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왕치산의 복귀가 칠상팔하 관례를 깨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결국 2022년 20차 당대회를 통해서 시진핑이 기존 권력 승계와 세대 교체의 관례를 깨고 중국공산당 총서기로 재선출되고 2023년 3월 양회에서 만장일치로 국가주석으로 뽑히면서 시진핑 3기가 시작됐다. 특히,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시진핑 측근들이 대거 포진함으로써 시진핑 권력의 인적 기반이 더욱 공고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본 장에서는 시진핑 3기가 시작됐던 2022년 20차 당대회와 2023년 양회에서 나타난 중국공산당 및 정부기관의 인선 및 기구 개편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

1. 20차 당대회: 시진핑 1인 체제의 도래

2022년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20차 당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당대회에는 중국공산

^{35.} 이에 대해서는 양갑용, 〈시진핑시대 중앙영도소조의 역할 변화 가능성 연구〉, 《중국연구》제60권, 2014; 황태연, 〈중국의 당정관계 변화, 마오쩌둥 시대로의 회귀인가?: 시진핑 시대 당정 기구개혁을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제21집:2호, 2019; 여유경, 〈시진핑의 제도적 조정을 통한 권력과 정당성 강화: 중국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를 중심으로〉, 《아태연구》제25권:4호, 2018을 참고.

^{36.} 당시 후진타오 측근으로 알려진 후춘화(胡春華)나 시진핑 측근으로 알려진 천민얼(陳敏爾)이 상무위원에 들어가면서 차기 후계자 구도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결국 둘 다 상무위원회에 진입하지 못했다. "시진핑 후계자 조만간 등장 소문···천민얼·후춘화 상무위원 발탁설", 국민일보, 2019,10,23,

당 전국대표 2,296명과 특별초청대표 83명 등 2,300여 명이 참가했는데, 제20기 중앙 위원회 위원,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위원이 선출됐고, 중앙위원회 위원 가운데에서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선출됐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당-국가체제(party-state system)로서 당대회를 거쳐 선출된 당의 지도부가 전국인민대표대회, 국무원,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지방정부 조직, 군 등 정부기관을 장악하고 중국을 통치한다. 20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표 1]과 같다.

[표 1] 제20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명단

연번	이름	사진	약력
1	시진핑 (習近平)		- 1953.6월생 - 산시성 푸핑 출생 - 칭화대 법학 박사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공중앙앙군사위원회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2	리창 (李強)		 - 1959.7월생 - 저장성 뤼안 출생 - 중앙당교 공상관리 석사 - 중앙정치국 위원, 상하이시 서기, 쟝쑤성 서기, 저쟝성 성장
3	자오러지 (趙樂際)		- 1957,3월생 - 산시성 시안 출생 - 베이징대 학사, 중앙당교 정치학 석사 -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중앙정치국 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산시성 서기, 칭하이성 성장
4	왕후닝 (王滬寧)		- 1955.10월생 - 산동성 라이저우 출생 - 푸단대 국제정치학 석사, 법학 석사 -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전면심화 개혁위 원회 판공실 부주임, 푸단대 교수

연번	이름	사진	약력
5	차이치 (蔡奇)		- 1955,12월생 - 푸젠 유시 출생 - 푸젠사범대 경제학 박사 - 중앙정치국 위원, 베이징시 서기,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조직위원장, 저쟝성 부성장, 항저우시 시장
6	당쉐샹 (丁薛祥)		- 1962.9월생 - 장쑤성 난퉁 출생 - 동북중형기계학원 기계공학, 푸단대 이학석사 - 중앙정치국 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중앙판공청 주임, 상하이 시 상무위원
7	리시 (李希)		- 1956.10월생 - 간쑤성 량당 출생 - 서북사범대 중문학, 칭화대 MBA - 중앙정치국 위원, 광동성 서기, 랴오닝성 서기, 상하이시 부 서기

^{*} 중국공산당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저자 작성.

20차 당대회를 통해서 중국공산당 내 통치구조가 다음과 같이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첫째, 시진핑이 속한 태자당의 반대 파벌로 알려진 공청단 세력이 크게 쇠퇴했다. 시진핑이 칠상팔하와 격대지정(隔代指定)³⁷ 등의 정치적 관례를 깨고 3연임을 한 것 이외에도 리커창 총리, 왕양(汪洋) 정치협상회의 주석이 제20기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 명단에 들지 못했고, 차기 후계자로 언급됐던 후춘화(胡春華) 부총리 역시 18기와 19기에서 정치국 위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20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위원직을 유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강등됐다. 집단지도체제 아래에서 태자당과 공청단이 정치권력은 물론, 국내 지지층의 이익을 위해서 상호 견제와 타협을 통해서 정책 결정을 해왔다는 점을

^{37.} 한 세대를 넘어 다음 최고지도자를 지정하는 중국공산당 내 권력승계 방식으로, 특정 개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한하고 파벌 간의 권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덩샤오핑이 장쩌민 이후의 지도자후진타오를 후계자로 지명했고, 장쩌민은 시진핑과 리커창을 후진타오 이후의 지도자로 지명했다.

고려할 때, 공청단의 쇠퇴는 시진핑과 그 세력을 견제할 당내 세력의 위축을 의미한다. 이는 향후 당내 파벌 경쟁이 약화되고 시진핑 측근들 간 권력 투쟁이 심화될 것을 암시한다.

둘째, 시진핑을 중심으로 하는 수직적 위계질서가 형성됐다. 제1중전회에서 시진핑 외에 20기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된 리창 상하이시 당 서기, 자오러지 중앙기율 검사위원회 서기,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 차이치 베이징시 당 서기, 딩쉐샹 중앙판공청 주임, 그리고 리시 광둥성 당 서기는 시진핑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그중에서 기존 권력 승계 관례에 따라 차기 지도부에 진입해야 하는 '6세대 지도자', 즉 '60후(60後: 1960년대생)'는 딩쉐샹 한 사람뿐이다. 이에 따라 시진핑 이후의 후계자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24명의 중앙정치국 위원 평균 연령이 65.2세로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을 뿐 아니라, ³⁸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진핑이 근무했었던 저장성, 푸젠성, 상하이 출신이 많았다. ³⁹ 연고지를 기반으로 시진핑과 20기 통치 엘리트 간의 관계가 맺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동시에 스광후이(時光輝) 구이저우성 당 부서기, 양진바이(楊晉柏) 베이징시 부시장, 류제(劉捷) 절강성 당위원회 상무위원, 귀닝닝(郭寧寧) 푸젠성 부성장 등 20여 명의 '70후'들이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공산당이 2022년 9월 19일에 발표한 '능력에 기반한 영도간부 등용 규정(推进领导干部能上能下规定)'에 따라 '능상능하(能上能下: 능력에 따른 등용)'가 '칠상팔하'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진핑 3기에 70후 간부가 빠르게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진핑이 후계자를 정하지 않음으로써 70후 간부들의 충성 경쟁을 유도할 것이고, 70후 간부들은 더 높은 직위로 올라서기 위해서 시진 핑에게 충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⁴⁰ 그런 점에서 이러한 지도부 구성은 집단지도체제가 표방하던 수평적 관계가 파괴되었고 중국공산당의 권력구도가 시진핑을 중심으로 하는 수직적 위계질서로 변화했음을 시사한다.

^{38.}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의 평균 연령은 61.7세(2002년 16기), 62.3세(2007년 17기), 63.4세(2012년 18기), 62.9세(2019년 19기)였다.

^{39.} 허재철 외. 〈중국 20차 당대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10.27.

^{40.} 양갑용. 《중국 엘리트 정치의 변화와 차세대: 70후 현황 분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0, pp. 42-45.

2. 2023년 양회 인선과 기구 개편: 시진핑 1인 체제의 제도화

2023년 3월에 개최된 양회에서 시진핑은 만장일치로 국가주석에 재선출됐다. 이외에도 이번 양회에서 주요 국가기관 지도자가 선출되었고 당과 정부 조직의 개편이 이뤄졌다. 시 진핑이 집권 이후 당의 영도(領導)를 강조하는 한편, 영도소조 확대와 당정 일원화를 통해서 개인의 권력을 강화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인선과 조직 개편은 시진핑 1인 체제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2023년 양회 인선

2023년 3월 양회에서는 20차 당대회를 통해 임명된 정치국 상무위원이 국무원 등 중국 정부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양회 인선 분석은 시진핑 3기 정부의 정세 인식과 경제, 외교, 국방 등 각 분야의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023년 양회에서 [표 2]와 같이 주요 국가기관 지도자가 선출됐다.

20차 당대회에서 나타났듯이 이번 중국 국가기관 인선에서도 시진핑에 대한 충성도가 인선 과정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리창 총리는 20차 당대회에서 정치 국 상무위원 서열 2위로 올라선 후 2023년 양회에서 총리로 발탁됐는데, 그는 2003년부터 20007년까지 윈저우시 당 서기를 지내며 시진핑 참모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그의 근무 경험을 보면 2012년 12월에 저장성 당 서기, 2016년 6월 장쑤성 당 서기, 2017년 10월에 상하이 당 서기 겸 정치국 위원을 거쳐왔고 중앙정부에서 행정을 담당한 경험이 없다. 비록 그가 중국 경제의 심장인 상하이, 저장성, 장쑤성 등에서의 경험과 성과를 인정받아 중국의 경제정책을 주로 총괄하는 총리로 임명됐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의 경험이 없는 경제 비전문가'라는 우려를 41 생각하면 시진핑과의 친분이 총리 인선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쉐샹 정치국 상무위원은 4명의 국무원 부총리에서 서열이 가장 높은 상무부총리로 발탁되었는데, 그는 2007년 3월~11월까지 상하이시 당 서기로 근무하며 시진핑과 근무한 경험이 있다. 또한, 2013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당쉐샹은 시진핑을 보좌하는 국가주

^{41. &}quot;習近平親信何立峰:如何實現習的經濟願景"、《紐約時報中文網》、2022. 10. 24., https://cn.nytimes.com/china/20221024/chinas-economy-is-in-trouble-xi-may-turn-to-he-lifeng-to-fix-it/zh-hant.

석실 주임으로 근무했는데, 이러한 근무 경험과 시진핑에 대한 충성도 때문에 그는 19기 중앙정치국 위원을 거치며 빠르게 승진한 것으로 보인다.

[표 2] 시진핑 3기 중국 국가기관별 주요 지도자 인선

역할	지도자
국가 최고 지도자	국가주석: 시진핑 당 총서기 국가부주석: 한정(韓正) 19기 상무위원
군대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 시진핑 국가 중앙군사위 부주석: 장여우샤(張又侠)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 허웨이둥(何衛東) 당 중 앙군사위 부주석
국무원	국무원 총리: 리창 당중앙 상무위원 국무원 부총리: 딩쉐샹 당중앙 상무위원, 허리펑(何立峰) 당중앙 정치국위원, 장궈칭(張國清) 당중앙 정치국위원, 류궈중(劉國中) 당중앙 정치국위원
국무위원	외교부장: 친강(秦剛)* 국방부장: 리창푸(李尚福)* 공안부장: 왕샤오훙(王小洪) 국무원 비서장: 우정롱(吴政隆), 선이친(諫貽琴, 여, 바이족) (* 친강과 리상푸는 각각 2023년 9월과 10월에 면직됐음.)
전국인민 대표대회	전인대 상무위원장: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리홍중(李鴻忠), 왕둥밍(王東明), 샤오제(肖捷), 정젠방(鄭建邦), 딩중리(丁仲禮), 하오밍진(郝明金), 차이다펑(蔡达峰), 허웨이(何維), 우웨이화(武維華), 톄 닝(鐵凝), 펑칭화(彭清華), 장칭웨이(張慶偉), 뤄쐉장춘(洛桑江村), 쉐커라이티·자커얼(雪克 來提·扎克爾) 전국인대 상무위 비서장: 류치(劉奇)
중국인민 정치협상 회의	정협 주석: 왕후닝(王滬寧) 정협 부주석: 스타이펑(石泰峰), 후춘화(胡春華), 선웨웨(沈 躍躍), 왕융(王勇), 저우창(周强), 파바라·거레랑제(帕巴拉·格列朗傑), 허후화(何厚鏵), 량전잉(梁振英), 바터얼(巴特爾), 쑤후이(蘇輝), 샤오훙(邵鴻), 가오윈룽(高雲龍), 천우(陳武), 무훙(穆虹), 센후이(鹹輝), 왕둥 펑(王東峰, 비서장 겸), 장신조(姜信治), 장줘쥔(蒋作君), 허바오샹(何報翔), 왕광첸(王光謙), 친보융(秦博勇), 주융신(朱永新), 양전(杨震)
기타	국가감찰위원회 주임: 류진궈(劉金國) 당중앙기율위 부서기 최고인민법원 원장: 장쥔(張軍) 당중앙 위원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잉융(應勇) 당중앙 위원

^{*} 중국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해 저자 작성.

국무원 부총리인 허리펑도 시진핑과의 인연이 오래됐다. 시진핑이 1985년 샤먼 부시장을 역임했을 때 허리펑은 샤먼시 재정국장이었다. 이를 계기로 시진핑과 인연을 맺은 허리펑은 이후 40년 가까이 시진핑의 측근으로 일해 왔다. 그는 시진핑 집권 이후 2014년 6월 중 국국가발전개발위원회 의장이 되었고, 2023년 3월 류허 전 경제담당 부총리에 이어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로 발탁됐다.

이와 같이 20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시진핑 측근이 예상대로 국가조직의 수장 자리를 맡았지만, 동시에 이전 리커창 행정부의 장관급 인사가 대부분 유임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번 양회에서 국방부장이 된 리상푸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된 정산제(鄭柵潔) 정도였고, 진좡롱(金壮龙) 공업정보화부 장관이나 왕원타(王文涛) 상무부 장관 등 주요 인사가 대부분 유임됐다.

후술하겠지만, 시진핑 3기 정부는 양회에서 '당과 정부 기구 개혁 방안(黨和國家機構改革方案, 이하 개편안)'을 통해서 과학기술부 재조직,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설립 등 13개의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위원회를 당내에 신설하면서 국가조직에 대한 당의 개입과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기 시작했다. 이를 볼 때 시진핑 측근의 요직 차지와 전 국무원 주요 인사의 유임은 정부기관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경제적 불안정과 지정학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인사 교체의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시진핑 3기를 안정적으로 시작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2) 당과 정부의 기구 개혁

2023년 양회에서 발표된 개편안도 시진핑의 정치권력 강화와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번 개편안은 13개의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① 과학기술부 재조 직, ②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설립, ③ 지방금융감독관리 체제 개혁, ④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국무원 직속기구화, ⑤ 중국인민은행 분행 및 지행 기구개혁 추진, ⑥ 국유금융자본관리 체제 완비, ⑦ 금융관리 부문 종사자에 대한 규범 관리 강화, ⑧ 국가데이터국설립, ⑨ 농업농촌부 직책 최적화, ⑩ 노령업무 체제 완비, ⑪ 지적재산권관리 체제 완비, ⑫ 국가신방국(國家信訪局)의 국무원 직속기구화, ⑬ 중앙국가기관 인원 편제 축소 등이다. 이러한 국무원 기구 개혁과 함께 중국공산당은 당내에 중앙과학기술위원회, 중앙금융위원회, 중앙금융공작위원회, 중앙사회공작부, 그리고 중앙 홍콩·마카오 공작판공실을 신설했다. 이러한 기구 개편은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개편 전 개편 후 인구 고령화 대응정책 협력 추진 등 직책 편입 중국노령협회 민정(民政)부 민정(民政)부 신설 민정부 담당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관련 직책 조정 또는 과하초지 사히박저 계회과 익보 외교부 외교부 기구 편입 직책, 중국생물기술발전센터 편입 교육부 교육부 재조직 첨단 신기술 발전 및 산업화 계획과 일부 직책 편입 재정부 재정부 폐지 공업·정보화부 공업·정보화부 소속(위상) 변경 상무부 상무부 공안부 공안부 당 중앙 재조직 및 국가기초연구와 국방부 국방부 응용기초연구 등 관련 직책 유지 실무 담당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 중앙과학기술위원회 무 사법부 사법부 원 과학기술 촉진 사회발전 계획과 수리(水利)부 수리(水利)부 일부 직책 편입 주 생태환경부 생태환경부 요 회계국(审计署) 과학기술 촉진 농업농촌발전 계획과 회계국(审计署) 구 일부 직책, 중국농촌기술개발센터 편입 농업농촌부 농업농촌부 성 자연자원부 자연자원부 해외지식 도입 직책 편입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퇴역군인사무부 퇴역군인사무부 교통운수부 교통운수부 응급관리부 응급관리부 국가안전부 국가안전부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과학기술 촉진 사회발전 계획과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일부 직책 편입 국가발전·개혁위워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인민은행 지<mark>점</mark> 중국인민은행 중국인민은행 기구개혁 총괄 문화·여행부 문화·여행부 디지털 경제 발전 추진 당 중앙기구 직책 등 편입 국가데이터국 중앙금융위원회 금융 그룹 등에 대한 일상적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실무 담당 감독 직책 편입 지도·감독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앙금융공작위원회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투자자 보호 직책 편입 국무원 직속 기구 국 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기업채권 원 국무원 직속 사업 단위 국무원 직속 기구 발행에 대하 심사 직책 편입 산 국가지식재산권국 국가지식재산권국 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산하 국무워 직속 기구 지도·감독 기 중앙사회공작부 국가행정민원(信访)국 국가행정민원(信访)국 Eŀ 국무원 직속 기구 국무원 판공청 산하 기 국무원금융안정발전위원회 동일 조직 두 개 간판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 판공실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 판공실 중앙 홍콩·마카오 공작 판공실

[그림 1] 2023년 양회에서 발표한 당과 국가기관 개편 내용

^{*} 출처: 문지영 외, 〈2023년 양회를 통해 본 시진핑 집권 3기 경제운영 전망과 시사점〉, KIEP, 2023.03.23., p. 16.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20000&bid=0003&list_no=10640&act=view

(1)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의지 재표명

이미 중국은 2021년 리커창 전 총리의 양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십년마일검(十年磨一劍: 십년 동안 칼 하나를 가는)'의 정신으로 국가전략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혁신 2030 중대 프로젝트(科技創新2030重大項目)'를 추진할 것을 밝혔다. ⁴² 또한, 14차 5개년 규획(2021~2015) 기간 중국은 차세대 정보, 바이오, 신에너지, 신재료, 첨단장비, 신에너지자동차, 녹색환경보호, 우주항공, 해양장비 등 9대 전략적 신흥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⁴³ 당시 화웨이 사태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은 과학기술 부분에서 심화되는 미국의 대중 견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혁신기술을 개발 및 발전시키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편안을 통해서 과학기술부를 강화할 뿐 아니라, 당내에 중앙과학기술 위원회를 신설해 과학기술부를 직접 지도 및 감독한다는 것은 미국의 기술 봉쇄에 대응하기 위해서 당 중앙이 과학기술 분야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 국무원이 주도하던 업무들이 당 기구로 이관되면서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당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 및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히 중앙과학기술위원회는 군민 융합기술은 물론, 주요 관련 산업까지 다루고 있다. 군민기술 융합발전이 2014년 이래 중국 총리의 양회 업무보고에 항상 포함되었지만 2019년도 이후 미국과의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44 과학기술에 대한 당의 개입과 영향력 확대는 미국의 대중 기술 견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중국의 기술혁신을 실현해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2) 금융 분야에 대한 권한 강화

이번 개편안을 통해서 중국 정부는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을 신설했다. 그동안 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다양한 국가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금융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국무원 직속인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이 와 동시에 중국공산당은 당내에 중앙금융위원회와 그 하위기관으로 중앙금융공작위원회 를 신설했다.

^{42.} 李克强,《2020年政府工作報告》.

^{43. 《}中華人民共和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四個五年規劃和2035年遠景目標綱要》.

^{44.} 조형진, "2018년 중국 양회 주요 내용과 향후 시진핑 체제 전망", 인차이나 브리프, 2018.04.16.

이와 같은 조치는 내부적으로 지방정부 부채 문제, 중앙은행 내의 부패 문제 등 중국 내금융 문제가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금융 분야에 대한 중앙 집권력을 강화해 금융 감독의 사각지대 근절, 금융리스크 방지효과 제고, 중첩관리로 인한 비효율 개선 등을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45 또한, 미중 간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외부 세력에 의한 금융 제재의 위험에 대비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46 양회 인선 발표에서 유임됐던 인민은 행장도 2023년 7월 시장주의자로 알려진 판궁성(潘功勝)으로 교체됐는데, 이는 현대화된 중국식 발전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의 현실에 맞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과 선진화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중국 사회에 대한 통제 강화

또한, 국무원 판공청 산하에 있던 국가신방국을 국무원 직속기구로 승격하고 당중앙에 신설한 중앙사회공작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했다. 국가신방국이 민원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임을 고려할 때, 이는 중국 사회에서 확산되는 국민들의 불만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우려와 통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 내에서는 중국공산당 통치에 대한 불만이 자주 표출됐다. 2020년 초 쉬장른(許章潤) 칭화대 법대 교수, 쉬즈융(許志永) 인권 변호사 등의 중국공산당 통치 비난이나 2022년 말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된 '백지 시위'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중국공산당은 중국 사회 내 민심이 당에 대한 불만으로 발전되고 표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한다는 경각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3) 시진핑 개인권력의 제도화 모색

시진핑은 집권 이후 당 중앙의 결정권을 강화하는 각종 규범 및 규칙을 제정하는 등의 제도개혁을 통해서 개인권력을 강화해 왔다. ⁴⁷ 예를 들어, 시진핑은 2013년 중국공산당 18기 3중전회에서 "전면적 개혁 심화와 관련된 중대문제 결정(中共中央關於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問題的決定)"을 통해 '정충설계(頂層設計)'와 함께 전국이 하나의 장기판처럼 움직일

^{45.} 문지영 외, 〈2023년 양회를 통해 본 시진핑 집권 3기 경제운영 전망과 시사점〉, KIEP, 2023,03.23., p.21.

^{46. &}quot;China's new central banker once fixed a crisis. He may need to again," *The New York Times*, 2023,07.25.

^{47.} 장윤미, 《당치국가 중국: 시진핑 시대 통치구조와 정치의 변화》,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23, p. 119.

수 있도록 하는 '탑-다운(top-down) 방식'을 강조했다. ⁴⁸ 시진핑은 집권 이후 법치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영도소조 확대와 당정 일원화를 통해서 개인의 권력을 강화했고, 그 결과 [표 3]과 같이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개입 및 영향력 행사 범위를 점차 확대해 왔다.

[표 3] 시진핑의 공식 직위

연번	직위명	취임 연도
1	중국공산당 총서기	2012
2	중공중앙 군사위원회 주석	2012
3	중국 국가주석	2013
4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2013
5	중앙 대만공작 영도소조장	2013
6	중앙군위 심화국방군대개혁 영도소조장	2014
7	중앙 국가안전위원회 주임	2014
8	중앙 사이버안전/정보화위원회 주임	2014
9	중앙군위 연합작전지휘센터 총사령관	2016
10	중앙 군민융합발전위원회 주임	2017
11	중앙 심계위원회 주임	2018
12	중앙 전면심화개혁위원회 주임	2018
13	중앙 외사공작위원회 주임	2018
14	중앙 전면의법치국위원회 주임	2018
15	중앙 재경위원회 주임	2018

^{*} 저자 작성.

그런 점에서 이번 양회 인선과 기구 개혁도 시진핑의 개인권력을 강화하고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리창이 이번에 신설된 중앙금융위원회 주임을, 그리고 부총리인 허리펑이 중앙금융공작위원회 주임을 맡았는데, 시진핑이 2018년도부터 중국공산당 재정경제위원회 주임을 맡아 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시진핑 측근이

^{48. &}quot;中共中央關於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議題的決定", 新華社, 2013.11.15.

새로 신설된 당 기구를 장악하고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을 관리 및 감독하는 것은 자연스 럽게 시진핑의 권위와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시진핑 3연임으로 집단지도체제의 한 축을 이루었던 권력 승계는 폐기됐다. 시진핑은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70후 간부들의 충성 경쟁을 유도하는 등 자신의 정치권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세대 교체를 추진하는 모습도 보인다. 또한 집단지도체제의 중요한 축이었던 정치 엘리트 간, 파벌 간의 상호 견제와 합의라는 정책 결정 과정도 공청단의 약화와 시진핑 측근의 부상으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당정 일원화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측근의 권력을 제도화함으로써 시진핑 친정체제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려는 모습도 나타났다. 그런 점에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중국식 민주'로 주장했던 집단지도체제는 시진핑 3기에 들면서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IV. 시진핑 1인 체제의 대내외적 함의

중국공산당의 집단지도체제는 최고 지도자 선출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없고, 영도집단 내부의 상호관계나 권한에 대한 규정도 없이 관례적으로 진행되어 온 측면이 강하다. 다시말해서 집단지도체제는 민주와 집중의 원리, 그리고 집단지도와 개인분업 간의 상호 결합을 포함하는 상황에서 당내 합의와 지도자의 특성에 따라 권력의 집중도가 다른 다양한 형태의 지도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는 공산당 일당체제가 가진 제도적 한계와 집단지도체제의 불완전성 때문에 야기되는 것이다. 49

즉, 중국공산당 일당 체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시진핑 시기 들어 비록 개인 권력이 강해졌지만 '당에 의한 영도체제'가 여전히 운영되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시진핑 2기부터 나타난 중국공산당 통치구조의 변화 움직임도 '공산당 통치의 유지'라는 목표하에서 중국공산당이 추진하는 정치개혁의 연장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50 시진핑 개인의 권위와 권력이당 중앙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시진핑 개인에게 아무리 권력이 집중되더라도 당의 통치를 통해서 시진핑 개인의 의지가 집단의지로 전환되고 이것이 당내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시진핑 집권 이후 당의 영도력이 중앙으로 빠르게 집중됐는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규범화되면서 시진핑 개인의 권력이 다시 강화되는 순환 구조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시진핑 1인의 권력 강화가 당영도체제 구조에 대한 조정과 함께 실질적 제도화로 이어지면서 시진핑의 권력 기반이 제도적 권위를 획득하는 것이다. 51

그러나 집단지도체제의 관점에서 보면, 시진핑 3기 출범과 그 과정에서 더욱 공고해지는 시진핑의 개인 권력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이 추진해 왔던 집단지도체제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할 수 있다. 개인에게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한 권력 승계, 세대교체, 정치 엘리트 간의 견제와 합의가 상당 부분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대만 학자는 시진핑 3기 중국공산당의 통치구조를 '총서기 책임제'와 같은 새로운 권력 구조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49.} 장윤미, 《당치국가 중국: 시진핑 시대 통치구조와 정치의 변화》,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23, p. 123.

^{50.} 이동규, 〈중국공산당의 정치개혁은 퇴보하는가: 시진핑 시기 당내 민주의 변화와 지속성〉, 《중국학논총》 제 65권, 2020, pp. 15-16.

^{51.} 장윤미, 《당치국가 중국: 시진핑 시대 통치구조와 정치의 변화》,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23, pp. 123-124.

'유사(類似) 총서기 책임제', 즉 시진핑이 여전히 중앙 영도집단의 일원이면서도 정책 결정의 영향력은 다른 구성원들보다 현저히 높은 제도로 규정하기도 했다.⁵²

결국 시진핑 1인 체제에서는 과거 집단지도체제 내에서 다수의 정치 엘리트가 정책을 결정 하는 집단 결정 방식이 아니라 시진핑 개인에게 집중된 정책 결정 방식이 우선될 것이다. 동시에 고위 정치 지도자로 올라서려는 당정 간부들의 충성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 규범과 관례가 깨진 상황에서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충성 경쟁이 가열되면 이로 인한 권력 집중과 우상 숭배 현상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 53 이는 중국 국내 정치와 외교 정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1. 대내적 함의

상술했듯이 시진핑 3기에 들어 집단지도체제가 상당 부분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미 20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인물들이 예정된 요직에 임명되면서 중국공산당뿐만 아니라 국가기구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통치 정당성 확보 수단으로 활용해 왔던 업적 정당성의 한 축을 차지했던 정치 제도화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역사적으로 서구 열강과 일제의 수탈을 받고 있던 중국을 해방시켜 '신중국'을 세웠다는 명분을 가지고 중국을 통치해 왔다. 개혁개방으로 중국이 시장경제를 받아들인 후에는 중국공산당은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 그리고 정치 제도화라는 업적 정당성을 자신의 통치 정당성 확보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⁵⁴

- 52. 趙建民·吳仁傑、〈習近平積極建構中共中央高層新權力架構〉、《展望與探索月刊》17卷4期, 2019.
- 53. 장윤미, 《당치국가 중국: 시진핑 시대 통치구조와 정치의 변화》,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23, p. 125.
- 54. 업적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경제발전에 대해서는 Zhao Dingxin, "The Mandate of Heaven and Performance in Historical and Contemporary China,"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3:3, 2009, pp. 416-433을, 사회안정에 대해서는 Bruce Dickson, "Who Wants to be a Communist? Career Incentives and Mobilized Loyalty in China," *China Quarterly* 217, 2013을, 정치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Minxin Pei, "Is CCP Rule Fragile or Resilient?," Andrew J. Nathan edit, *Will China Democratiz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Baltimore, 2013, pp. 100-102, 또는 Jinghan Zeng,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Capacity to Rule: Ideology, Legitimacy and Party Cohesion*,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2016, pp. 6-8을 참고.

그러나 시진핑 시기 들어 이러한 업적 정당성이 크게 흔들려 왔다. 중국경제는 이미 10% 대의 성장률을 자랑하던 고속성장 시기를 마감하고 중고속성장 단계, 소위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에 진입했다. 즉, 경제구조개혁에 치중하는 질적 성장 시기에 진입하면서 과거에 보여주었던 양적 성장과 경제적 번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 것이다. 게다가 미국의 대중 견제와 압박,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적 경기침체는 중국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제 상황과 맞물려 중국 사회에서는 실업이 증가하고 농민과 노동자들의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면서 사회 갈등과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중국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의 근거가 되었던 업적 정당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치 제도화의 근거로 선전해 왔던 집단지도체제를 무시하고 시진핑 1인 체제를 강화하는 것은 그만큼 대중의 저항과 비난을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한다. 2016년 18기 6중전회에서 시진핑이 핵심 지위를 부여받았을 때와는 달리 시진핑의 3연임에 대해서는 '백지 시위' 등으로 기충(基層)에서의 반대 여론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중국 사회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강력한 통제와 관리를 고려할 때, 이는 중국 사회에 당과 정부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게 축적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지난 지도부가 업적에 기반해 통치 정당성을 확보한 것에 더해서 시진핑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 3기 정부는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그 비전대로 중국이 강해지고 중화민족이 부흥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결국 대내외적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시진핑 정부는 당내 결집을 위한 정치교육 강화,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 및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위한 이데올로기 교육과 정치 선전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미 시진핑 정부는 2021년에 '중앙 당사(黨史) 학습교육 영도소조'를 새롭게 신설하고 학교 등 교육기관은 물론, 인터넷 공간에서 정치 선전을 확대하고 사회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2022년도 중국 각급 학교에서 시진핑 사상을 주제로 한 과목과 강좌가 개설된데 이어, 2023년도 10월 7~8일에 개최된 중국 선전사상문화공작회의(宣傳思想文化工作會義)에서는 '시진핑문화사상(習近平文化思想)'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는 경제, 외교, 군사, 환경, 법률 분야에 이은 여섯 번째 시진핑 사상으로, 선전, 뉴스, 여론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이후 중국중앙TV(CCTV)에서 시진핑문화사상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중국 전역에서 시진핑문화사상을 홍보하고 확산하고 있다. 게다가 신화사와 CCTV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2023년도 하반기에 개정된 '간부 교육 훈련 공작 조례'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학습 성과를 평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조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국유 기업 및 관련 기관도 각 기관의 특성에 맞 게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⁵⁵

이러한 정치사상 교육 강화를 통해서 시진핑 정부가 서구 열강의 침략을 받았던 중국 근대 사와 중국을 해방시킨 중국공산당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을 볼 때, 그 이면에는 미국 및 미 국 주도의 반중 연대를 내부 결속용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으로 중국공산당 통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표출과 결집을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중국사회의 불안정성을 높일 위험성이 있다.

또한 개혁개방 이후 형성된 권력 승계와 세대 교체의 관례가 무너지면서 시진핑 3기에는 70후 간부가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세대 교체와 격대지정의 관례에 따라 시진핑 2기에는 60후 중심의 6세대 지도부로 구성된 차기 지도부가 형성돼야 했다. 그러나 시진핑 시기 쑨정차이(孫政才) 충징시 당 서기 등 6세대 지도부의 핵심 인사들이 부패문제로 물러나며 차기 지도부가 불투명해졌고, 결국 6세대 지도부가 제외된 채 시진핑 3기가 시작됐다. 중국 정치권력을 획득할 것으로 기대했던 6세대 지도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시진핑 3기와 시진핑 1인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불만을 가진 60후보다는 자신에게 충성할 수 있는 70후 간부들이 자신의 장기집권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는 '세대교체'라는 정치적 명분으로 새로운 정치 동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유리하게 때문에 시진핑 3기에 '70후' 간부들이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시진핑의 장기집권도 예상된다. 정치적 관례에 따르면 6세대 지도부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 동안 중국을 통치해야 하지만, 6세대 지도부가 쇠퇴함에 따라 시진핑을 대체할 만한 차기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다. 정치적 명분에 따라 7세대 지도부에게 정치권력을 이양해야 하는 2032년까지 차기 지도부의 공백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시진핑이 4연임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에 비해서 카리스마가 부족한 시진핑이 집권 후 정치적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공식 직위를 신설 및 장악해온점을 고려할 때, 시진핑 3기에 '당 주석'의 직위가 부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동시에 중국 정치의 불안정성도 높아지고 있다. 시진핑 1인 체제 강화가 중국 정치의 불투

^{55. &}quot;중국, '시진핑 사상' 학습 열풍… 6번째 사상 '문화' 공개", 한국무역신문, 2023.10.17.

명성과 예측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도에 시진핑이 임명했던 친강 외교부장, 리상푸 국방부장이 면직됐지만 그 배경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리커창 총리의 사망이 국민들의 불만을 자극할 것이라는 등 시진핑 체제에 대한 불안 요인으로 제기되기도했다. 시진핑 3연임이 장기간 추진했던 중국공산당의 정치개혁 흐름을 전환하는 것이고차기 후계자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 투쟁이 심화되거나 당내 분열이 나타날 위험성도 존재한다.

2. 대외적 함의

시진핑 정부는 2022년 3연임 이후 공산당 일당 체제의 안정, 경제 회복, 그리고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 강화라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안정적인 집권을 위해서 시진핑 정부는 경제 발전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과시하며 '강한 중국'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진핑 정부는 중국공산당 통치체제와 정당성에 대한 외부의 공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수밖에 없다. 이는 중국의 국내정치적 요소가 중국의 외교안보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시사한다.

2022년도 10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시진핑은 중국이 "세계의 변화, 시대의 변화, 역사의 변화가 이전에 없던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중국공산당이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 특히 외부의 위협, 억제, 봉쇄, 극한의 압박에 직면해 ··· 국가 존엄과 핵심이익을 수호하고, 국가발전과 안보의 주도권을 굳게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⁵⁶ 현 국제정세를 생각할 때 '외부'가 미국을 암시하고 있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예전부터 시진핑이 현재의 국제정세를 '백 년간 없던 대격변의 시기(百年未有之大變局)'로 규정하고, '동승서강(東升西降)'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을 심각한 사안으로보고 있으며 적극 대응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85년 당샤오핑이 세계가 직면한 과제로 '평화와 발전'을 제시한 이래로 중국 외교의 공식적 기조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든지 간에 평화와 발전에 있었다. 시진핑도 지난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평화와 발전이 시대적 주제'임을 언급했다. 그런 점에서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외부의 위협'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중

국의 국제정세 인식이 평화와 발전에서 '대립', 혹은 '경쟁'으로 변화했음을 말해 준다. 즉, 중국은 미국의 견제와 압박을 기정사실화하고 미국의 행위를 중국에 대한 위협으로 천명함으로써 앞으로 미국과의 경쟁에서 물러서지 않고 더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밝힌 것이다.

또한 '외부 세력의 위협'이라는 표현은 대내적으로 중국이 경험한 '백년국치(百年國恥)'의 기억을 중국 국민들에게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다. 시진핑은 2018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연설에서도 56개의 민족으로 이뤄진 중화민족이 '극악무도한 침략자(窮凶極惡的侵略者)'인서구 열강을 패배시킨 역사를 강조하기도 했다. 57 이와 같이 시진핑은 중국이 경험한 수치의 역사를 강조하고 민족주의를 고취시킴으로써 서구 사상의 유입을 방지하고 서구와는 차별된 '중국 특색'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미중 전략경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전 세계적 반중 정서 등으로 시진 핑 3기 정부가 단기간 안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시진핑은 계속해서 국내 민족주의적 정서를 자극해 당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높이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에게 '강한 중국'의 모습을 각인하기 위해서 미국은 물론, 주변국에게 중국의 이익 확보를 위한 일방적이고 강경한 대외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3년도 3월 양회 기간에 친강 외교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국이 속도를 조절하지 않고 계속 폭주한다면 ··· 충돌의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미국이) 중국을 최대 경쟁자이자 최대 지정학적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이성적이고 건강한 궤도를 벗어났다"면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언급했다. 또한, "늑대가 기습하면 중국의 외교관들은 늑대와 함께 춤을 추면서 국가를 지켜야 한다"며 미국을 늑대로 비유하고, 더 나아가 미국의 대중 견제와 압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58

시진핑 주석 역시 양회 기간 열린 정치협상회의 합동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전방위에 걸친 억제, 포위, 압박을 통해서 중국의 발전에 전례 없는 심각한

^{57.} 習近平,《在第十三届全國人民代表大会第一次會議上的講話》.

^{58. &}quot;秦剛:當豺狼擋道、惡狼來襲,中國外交官必須"與狼共舞"保家衛國",中國外交部,2023.03.07., https://www.mfa.gov.cn/web/wjbz 673089/xghd 673097/202303/t20230307 11036937,shtml,

도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⁵⁹ 중국 지도부의 인식은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을 비이성적으로 인식하고 압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며 국내외에서 '전랑외교(戰狼外交; wolf-warrior diplomacy)'로 불리는 강경 외교노선의 이유가 미국 및 서구 국가에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대내적으로 강한 중국의 모습을 유지하는 동시에 대내외적으로 중국의 공세적 외교노선에 대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시진핑 3기가 시작하면서 중국 정부가 외교적 성과를 통해 시진핑의 정치 권위를 제고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2022년 12월 25일에 개최된 '2022년 국제정세와 중국 외교 심포지엄'에서 '2023년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 6대 과제'로 ① 국가원수 외교(head-of-state diplomacy) 지원, ② 전방위 외교 확대, ③ 글로벌 거 버넌스의 최대공약수 취합, ④ 중국의 고품질 발전과 대외 개방 지원, ⑤ 국익 수호를 위한 방어선 강화, ⑥ 국제 소통 능력 강화를 제시했다. 60 과거 외교 과제 발표 내용과 비교할 때, '국가원수 외교 지원' 항목이 새롭게 삽입되었고, 시진핑이 제기한 다양한 글로벌 이 니셔티브 추진을 강조했다. 즉, 중국 정부는 시진핑 주석이 제기한 중국의 미래 비전, 즉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강한 중국', '책임 있는 대국'의 모습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외교를 추진하고, 이러한 외교적 성과를 통해서 시진핑의 정치적 권위를 제고하고 국내 정치의 안정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2023년도 중국이 강조한 다양한 글로벌 담론들이 이를 방증한다. 시진핑 정부는 2023년도에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개념 문건(concept paper)"과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중간 보고서"를 출간했을 뿐 아니라 3월 중국공산당과 세계 정당 고위급 대화를 계기로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Global Civilization Initiative, GCI)'를 새롭게 제시했다. ⁶¹ 이를 통해서 시진핑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글로벌 담론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중국이 '책

^{59. &}quot;習近平在看望參加政協會議的民建工商聯界委員時強調 正確引導民營經濟健康發展高質量發展 王滬寧蔡 奇丁薛祥參加看望和討論", 新華網, 2023,03,06., http://www.news.cn/politics/leaders/2023-03/06/c_ 1129417096.htm.

^{60. &}quot;王毅談2023年中國特色大國外交六大任務", 新華網, 2022.12.25., news.cn/world/2022-12/25/c_1129 231181.htm.

^{61. &}quot;習近平在中國共產黨與世界政黨高層對話會上的主題演講(全文)", 中國政府網, 2023.03.15., https://www.gov.cn/xinwen/2023-03/15/content 5746950.htm.

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중국 국민들의 애국주의를 고취하고 시진핑 및 당에 대한 충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미국의 공세를 빌미로 내부적으로는 체제 단속과 결집을 모색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주변국들이 바이든 정부가 주도하는 반중 연대에 동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설득과 압박을 병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정부는 중국공산당에 대한 국내 비난을 차단하고 '강한 중국'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치(value)의 문제에 있어서 강경한 원칙적 입장과 대응을 견지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을 직접 겨냥하기보다는 미국 주도의 대중 압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들을 저지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즉, 미국 주도의 반중 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판단된 국가에 대해서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단기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국가 이미지를 훼손할지라도 국내적으로 시진핑 및 중국공산당의 통치 유지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3. 한국에의 함의

1992년 8월 한중수교 이후 한중관계는 한중 교역, 문화적 유사성, 활발한 인적 교류 등을 기반으로 빠르게 발전해 왔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2005년 9.19 공동성명 등의 성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구동존이(求同存異)'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미국 및 북한과 관련된 외교안보 문제나 각국의 외교전략에 대한 소통이 제한됐고 상대국에 대한 섣부른 기대와 오해가 형성되기도 했다. 중국의 부상으로 한중 간 국력의 비대칭성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 및 북핵문제가 심화되면서 한미동맹, 미중관계, 남북관계, 북중관계가 얽혀 있는 한중관계의 구조적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2022년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중 양국이 미래발전을 위한 협력 모색에 합의했지만, 미중 경쟁의 심화와 양국 정부의 입장 차 때문에 한중관계가 단기간에 과거의 우호적 관계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한중관계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고려할 때 시진핑 3연임과 그로 인한 시진핑 1인 체제의 강화는 한국에게 다음과 같은 도전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1) 한중 간 체제 및 가치 갈등 확산

이미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드러난 중

국체제의 불투명성과 폭력성으로 인해 한중 간 체제와 가치의 괴리가 나타났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3연임으로 인해서 한중 간 체제 이질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한중 간에는 역사 및 문화 갈등을 넘어 체제와 가치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될 위험성이 커졌다.

이미 한국 내 반중 정서가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다. 미국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반중 정서(비호감 비율, %)는 2013년 50%에서 2023년 77%로 크게 상승했다. 62 2022년 4~6월 56개국에서 이뤄진 국제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인의 반중 정서는 81%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63 인터넷 공간의 혐한 정서, 중국 청년 세대의 애국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 중국 정부의 일방적 행위 등의 요인이 이러한 반중 정서의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64

이러한 요인들이 시진핑 3기에 더욱 강해질 수 있다. 시진핑 3기 중국 정부는 시진핑의 정 치적 권위를 유지하고 높이기 위해서 국민을 대상으로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고 확대하고 있다. 사회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의 권위에 반하는 목소리를 표 출하기도 어렵다. 중국 정부가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애국주의를 고취할수록 중국 내 에서 한국에 대한 우월감, 미국의 동맹인 한국에 대한 불만과 오해가 더욱 확산되고 분출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것이 한중 간 역사 및 문화 갈등을 넘어 체제와 가치를 둘러싼 갈 등으로 발전하고 양국 국민 간 상호 인식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2) 한국에 대한 회유와 압박

미중 전략경쟁구도 속에서 한중관계는 이미 미중관계에 종속되어 독립된 양자관계의 발

- 62. "Views of China and the Global Balance of Power", Global Publics Back U.S. on Fighting ISIS, but Are Critical of Post-9/11 Torture, Pew Research Center, 2015.06.23.,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15/06/23/2-views-of-china-and-the-global-balance-of-power; "China's Approach to Foreign Policy Gets Largely Negative Reviews in 24-Country Survey, Pew Research Center, 2023.07.27.,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23/07/27/views-of-china.
- 63. 본 여론조사는 시노폰 보더랜드(Sinofon Borderlands) 프로젝트의 일부로, 56개국 8만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11일부터 6월 23일까지 시행됐다. 중국에 대해 '부정적' 혹은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중은 한국 (81%), 스위스(72%), 일본(69%) 순이었다. Richard Q. Turcsanyi & Esther E. Song, "South Koreans Have the World's Most Negative Views of China, Why?", *The Diplomat*, 2022.12.24., https://thediplomat.com/2022/12/south-koreans-have-the-worlds-most-negative-views-of-china-why.

전을 모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시진핑의 1인 체제를 새롭게 구축한 중국은 시진핑 3기에 국내정치의 안정을 위해 미국의 대중 견제와 압박에 강경하게 대응하며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대외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가 시진핑 3기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서 주변 정세의 안정을 모색하며 비교적 덜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구사했다고 한다면,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이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견고히 하고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언한 대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는 모습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상술했듯이 시진핑 정부가 대내적으로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애국주의를 고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적극적인 대외정책의 추진은 국내 안정과 결집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공세적인 대외정책은 미국의 동맹이자 이웃국가인 한국에 대한 회유와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한미동맹, 미일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서 미국이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경계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도 중국은 미국의 반중 연대의 균열을 만들기 위해서 역내 미국의 동맹 중 '약한 고리'로인식하는 한국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략하려 할 것이다. 2016년 사드(THAAD) 사태가 이를 방증한다. 65

시진핑 정부가 '중국몽'을 주창하며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lobal Security Initiative, GSI)' 등 다양한 글로벌 담론을 제기하며 중국식 국제질서를 모색하는 데 반해,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와 '가치외교'를 내세우며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일관계 개선 및한미일 안보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한중 양국 정부의 외교 지향점이 상이한 상황에서 시진핑 정부가 국내 정치의 안정화를 위해서 핵심이익 수호를 명목으로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한다면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북한 문제, 글로벌 공급망, 대만 문제 등다양한 사안에서 한국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 미국의 반중 연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치체제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북한과의 연대를 강화할 뿐 아니라, '칩4(Chip 4)'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대중 경제의존도를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 과정에서 시진핑 정부는 중국의 핵심이익 수

^{64.} 이동규·강충구, 〈한국 청년 세대의 대중 인식 악화와 대응〉, 이슈브리프, 아산정책연구원, 2023. 11.03.

^{65.}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지만, 중국은 이것이 중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한다면서 한국 단체여행 금지, 한한령(限韓令: 중국 내 한류 금지) 등 일방적인 경제 제재를 단행했다.

호를 위해 투쟁하는 당과 정부의 모습을 홍보하는 한편, 국내 불만을 외부로 향하도록 유도하고자 할 것이다.

3) 정책 제언

상술한 내용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중국을 객 관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의 전략적 가치를 새롭게 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협력국으로 인식되어 왔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북한문제에서의 중국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 이러한 인식하에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한국의 경제 성장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중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일종의 프레임을 한국 사회 내에 형성했다. 예를 들어 한중 간의 경제교역 구조가 변화했고 서로 협력하기보다 경쟁하는 부문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접근하고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보다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여론이 존재한다. 이렇게 중국과의 우호적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프레임은 한국내 여론 형성은 물론,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과 대중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한국정부는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중국의 전략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시도는커녕, 중국을 자극할 것이라는 생각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 방적으로 대응하는 등 한중 간 현안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 구도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중국식 체제의 확산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인 한국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의 확산을 위축시킬 수 있다. 시진핑 정부의 정치사상교육과 애국주의 강화가 한중 간 체제 및 가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미국 주도의 반중 연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이 북핵 문제에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모습은 한반도 안보에 대한 우려를 초래한다. 그러나 동시에 한중 FTA 2단계 협상 및 경제협력, 기후 변화, 황사나 후쿠시마 오염수 등 환경문제, 국제범죄 등 다양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과 협력해야 할 필요도 있다.

미중 전략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외정책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 동시에 각국 지도 자의 정세 인식과 국내정치 상황이 각국 대외정책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국의 국내정

지적 변화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그것이 중국의 대내외 정책, 중국인의 인식, 한중관계, 글로벌 현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에 중국 시진핑 정부가 어떠한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지, 그것이 한국에게 어떤 전략적 가치가 있는지를 고민하며 객관적으로 중국에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를 기반으로 각 분야와 사안별로 중국이 협력의 대상인가, 경계의 대상인가를 고민하고 장기적인 전략과 접근법을 설정해 나가야 한다.

둘째, 한국에 대한 중국의 회유와 압박 가능성을 인식하고 대응 수단을 준비해야 한다. 시진핑 친정체제가 구축되면서 시진핑 개인의 정세 인식과 정치 야망이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시진핑에 대한 충성 경쟁으로 중국 정부가 공세적외교를 펼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은 국내 정치의 안정화를 모색하고 미국 주도의 반중 연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소위 '전랑외교'라는 공세적 외교노선을 취하며 미국의 대중 견제에 동참한 호주나 EU에 대해서 외교적 공세와 경제적 제재를 통해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2023년 11월 미중정상회담에서 미중 양국은 미중 경쟁이 대립이나 충돌로 비화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군사대화 재개나 비전통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에 합의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대만 문제, 북핵 문제 등의 외교안보 이 슈에서는 각국의 입장 차를 재확인하며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중국은 정상회담 전부터 미국이 시진핑 주석에게 별도의 초청장을 보냈다며 미중정상회담을 홍보했고, 회담후에는 시진핑이 강대국인 미중 양국의 협력 방향을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했을 뿐 아니라, 대만 문제,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 등의 일방적 제재 조치 등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음을 강조했다. 이를 볼 때, 시진핑 정부는 미중정상회담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 강화와 국내정치의 안정화를 꾀할 근거를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22년 미중 정상회담, 2023년 6월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미 국무장관의 방중이나 7월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의 방중 시에 중국은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미중관계가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간 한쪽을 선택하기보다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파했다. 이를 고려할 때, 시진핑 정부는 미중관계 완화를 명목으로 유럽은 물론, 한국, 일본 등의 역내 국가들 내에게 중국과의 협력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국 주도의 반중 연대의 균열을 모색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회유와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인식하고 외교적 공세, 경제 제재, 해상에서의 충돌, 가치 및 문화 갈등을 둘러싼 여론 공격등 다양한 회유와 압박 조치를 상정해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지속적으로 줄이는 한편, 유사입장국들과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외교적 소통을 확대하고 정례화해야 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한중관계의 악화로 한중 간 외교채널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이 미국에 경사되었다고 인식하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중국이 한중 간외교적 소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거나 이를 통해 한국과의 협력을 실제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2021년에 차관급으로 격상된 한중 외교안보대화도 여전히 개최되지 못했다. 또한, 한중관계의 한중 간의 입장 차를 고려할 때 중국과의 외교적 소통이 한중 간 의견 조율이나 갈등 해결에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채널을 확대하고 정례화하는 노력을 해야한다. 이를 통해서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내고 중국의 압박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과의 외교 소통을 통해서 다양한현안에 대한 한중 양국 정부의 인식과 정책을 이해하고 양국 간 불필요한 오해가 쌓이지않게 한중관계를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중국에게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외정책이 대중 견제의 목적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중견국인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노력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한다. 한미동맹의확대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경우에도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임을 강조하고 이를 기반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요구해야한다. 그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과 이해를 얻지 못할지라도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한국은 중국의 압박에 대응할 근거와 외교적 명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V. 나가며

중국공산당은 개혁개방 이후 집단지도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을 실시했다. 당-국가 체제하에서 중국공산당이 기타 정치세력을 용인하지 않고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단지도체제에 기반한 정치개혁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측면도 존재한다. 그러나 중국은 이것을 '중국식 민주'로 선전하며 중국 내 민주화 요구를 억제하고 서구 국가들의대중 견제에 대응해 왔다. 시진핑 2기에 들면서 당의 권위를 강화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시진핑 개인권력이 같이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집단지도체제의 특징, 즉세대 교체와 정치 엘리트 및 파벌 간의 견제와 합의가 작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이 마오쩌둥 시기와 같은 개인 독재로의 회귀라기보다는 미중 대립의 심화, 경기 침체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중국공산당이 이러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최고지도자에게 권력을 집중하고 공산당 통치를 유지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기도 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20차 당대회와 2023년 양회에서 시진핑의 당과 국가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확대되었고, 시진핑 측근이 요직을 차지하며 시진핑 친정체제가 구축됐다. 시진핑의 3연임과 시진핑 친정체제 구축으로 시진핑의 개인권력이 제도화되고 권력 승계는 물론, 정치 엘리트와 당내 파벌 간의 견제와 타협에 기반한 정책 결정 방식도 심각하게 손상됐다. 경제 위기와 사회 불안정에 직면한 중국공산당은 집단지도체제에서 시진핑 1인 체제로의 전환을 합리화하고 통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내적으로는 정치사상 교육과 사회통제를 강화할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시진핑이 주창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강한 중국'의 실현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는 한중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시진핑 정부가 시진핑의 권력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당의 영도, 사회통제, 정치사상 교육을 강조함에 따라 한중 간의 체제와 가치의 이질성은 더욱 부각되고 한중 양국 국민 간의 상호 인식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시진핑 개인의 정세 인식과 정치 야망, 그리고 시진핑에 대한 충성 경쟁으로 시진핑 정부가 한국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중국의 국내정치적 변화를 면밀하게 관찰하는 한편, 그것이 중국의 대내외 정책, 중국인의 인식, 한중관계, 글로벌

현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고민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가치를 새롭게 산정해야 한다. 둘째, 한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회유와 압박 가능성을 인식하고 외교적 공세, 경제 제재, 가치 및 문화 갈등을 둘러싼 여론 공격 등 다양한 회유와 압박 조치를 상정해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지속적으로 줄이는 한편, 유사입장국들과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중국과의 외교 소통을 확대하고 정례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국에게 한국이 중국을 의식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한중 양국 정부의 인식과 정책을 이해하고 양국 간 불필요한 오해가 쌓이지 않게 한중관계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 문지영 외, 〈2023년 양회를 통해 본 시진핑 집권 3기 경제운영 전망과 시사점〉, KIEP, 2023,03,23,
- 안치영, 〈연령규정과 왕치산의 유임 문제〉, 《관행중국》, 2017년 6월호, 2017, http://aocs.inu.ac.kr/webzine/app/view.php?wp=191.
- 양갑용, 〈시진핑 시대 중앙영도소조의 역할 변화 가능성 연구〉, 《중국연구》 제60권, 2014.
- 여유경, 〈시진핑의 제도적 조정을 통한 권력과 정당성 강화: 중국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를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25권:4호, 2018.
- 이동규, 〈중국공산당과 현대신유학의 관계: 현대신유학의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제30권:2호, 2015.
- 이동규, 〈중국공산당의 정치개혁은 퇴보하는가: 시진핑 시기 당내 민주의 변화와 지속성〉, 《중국학논총》제65권, 중국문화학회, 2020.
- 이동규·강충구, 〈한국 청년 세대의 대중 인식 악화와 대응〉, 이슈브리프, 아산정책연구원, 2023. 11. 03.
- 이민자, 〈중국식 민주와 공산당 체제의 공존〉, 《신아세아》 20권 3호, 2013년.
- 이종화, 〈중국의 정치체제개혁과 당내민주의 발전〉, 《신아세아》 16권:1호, 2009.
- 이정남, 〈최근 중국의 민주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당내 민주화론을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제10집: 2호, 2009.
- 자오쯔양·바오푸, 장윤미·이종화 역, 《국가의 죄수: 자오쯔양 중국공산당 총서기 최후의 비밀 회고록》, 서울: 에버리치홀딩스, 2010.
- 장윤미, 《당치국가 중국: 시진핑 시대 통치구조와 정치의 변화》, 서울: 서강대학교출판 부, 2023.
- 전세영·강준영, 〈중국 역대 반부패 운동의 특징 연구-시진핑 시기를 중심으로〉, 《중국연구》 제86권, 2021.
- 조영남·안치영·구자선, 《중국의 민주주의: 공산당의 당내민주 연구》, 파주: 나남, 2011.
- 조영남, 《법치와 정치개혁》, 파주: 창비, 2013.
- 조형진, 〈2018년 중국 양회 주요 내용과 향후 시진핑 체제 전망〉, 인차이나 브리프, 2018.04.16.
- "중국, '시진핑 사상' 학습 열풍… 6번째 사상 '문화' 공개", 한국무역신문, 2023.10.17.
- 황태연. 〈중국의 당정관계 변화, 마오쩌둥 시대로의 회귀인가?: 시진핑 시대 당정 기구개

- 혁을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제21집:2호. 2019.
- 후안강 지음, 성균중국연구소 옮김, 《중국공산당은 어떻게 통치하는가: 중국집단영도체제》, 서울: 성균관대학출판부, 2016.
- Cheng Li, "The Emergence of the Fifth Generation in the Provincial Leadership," China Leadership Monitor Vol. 6, Spring 2003.
- Cheng Li, Chinese politics in the Xi Jinping era: reassessing collective leadership,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16.
- "Chinese Premier Li Qiang picked to head finance commission as Xi Jinping delegates duties," South China Morning Post, 2023,11,25.
- "China's new central banker once fixed a crisis. He may need to again," *The New York Times*, 2023.07.25.
- Bruce Dickson, "Who Wants to be a Communist? Career Incentives and Mobilized Loyalty in China," *China Quarterly* 217, 2013.
- "China's Approach to Foreign Policy Gets Largely Negative Reviews in 24-Country Survey," Pew Research Center, 2023.07.27.,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23/07/27/views-of-china.
- "China takes aim at Western ideas," *The New York Times*, 2013.08.19., https://www.nytimes.com/2013/08/20/world/asia/chinas-new-leadership-takes-hard-line-in-secret-memo.html.
- Dingping Guo, "The Growth of Intra-party Democracy and Its Implications for China's Democratic Future," Fudan Journal of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7, 2014.
- Hongyi Lai, China's Governance Model: Flexibility and durability of pragmatic authoritarianism, New York: Routledge, 2016.
- "Politburo in China Gets Four New Members," *The New York Times*, 2007.10.23., https://www.nytimes.com/2007/10/22/world/asia/22china.html.
- "Many Urge Next Leader of China to Liberalize," *The New York Times*, 2012.10.21., https://www.nytimes.com/2012/10/22/world/asia/many-urge-chinas-next-leader-to-enact-reform.html.
- Minxin Pei, "Is CCP Rule Fragile or Resilient?," Andrew J. Nathan edit, Will China Democratiz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Baltimore, 2013.

- Richard Q. Turcsanyi & Esther E. Song, "South Koreans Have the World's Most Negative Views of China. Why?," *The Diplomat*, 2022.12.24., https://thediplomat.com/2022/12/south-koreans-have-the-worlds-most-negative-views-of-china-why.
- "Views of China and the Global Balance of Power," Global Publics Back U.S. on Fighting ISIS, but Are Critical of Post-9/11 Torture, Pew Research Center, 2015.06.23.,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15/06/23/2-views-of-china-and-the-global-balance-of-power.
- Zeng Jinhan,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Capacity to Rule: ideology, legitimacy and party cohes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6.
- Zhao Dingxin, "The Mandate of Heaven and Performance in Historical and Contemporary China,"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3:3, 2009.
- "國務委員兼外交部長王毅就中國外交政策和對外關係回答中外記者提問", 中國外交部, 2022.03.07., https://www.fmprc.gov.cn/web/wjbzhd/202203/t20220307_10649045.shtml.
- 胡鞍鋼.《中国集体领导体制》,北京:中国人民大学出版社,2013.
- 江澤民,《江澤民在中國共產黨第十六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 李克强,《2020年政府工作報告》,2020.03.05.
- "秦剛:當豺狼擋道、惡狼來襲,中國外交官必須"與狼共舞"保家衛國",中國外交部,2023. 03.07., https://www.mfa.gov.cn/web/wjbz_673089/xghd_673097/202303/t20230307_11036937.shtml.
- 趙建民·吳仁傑,〈習近平積極建構中共中央高層新權力架構〉,《展望與探索月刊》17卷 4期,2019.
- "王毅談2023年中國特色大國外交六大任務",新華網,2022.12.25., news.cn/world/2022-12/25/c 1129231181.htm.
- 王紹光、《民主四講》、北京:三聯書店、2008.
- "習近平親信何立峰:如何實現習的經濟願景"、《紐約時報中文網》,2022. 10. 24, https://cn.nytimes.com/china/20221024/chinas-economy-is-in-trouble-xi-may-turn-to-he-lifeng-to-fix-it/zh-hant.
- 習近平、《在第十三届全國人民代表大会第一次會議上的講話》.
- "習近平在看望參加政協會議的民建工商聯界委員時強調正確引導民營經濟健康發展高質量發展 王滬寧蔡奇丁薛祥參加看望和討論",新華網,2023.03.06., http://www.

news.cn/politics/leaders/2023-03/06/c_1129417096.htm.

"習近平在中國共產黨與世界政黨高層對話會上的主題演講(全文)",中國政府網,2023.03. 15., https://www.gov.cn/xinwen/2023-03/15/content_5746950.htm.

習近平、《中國共產黨第20次全國代表大會報告》。

"中共中央關於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議題的決定", 新华社, 2013.11.15.

《中華人民共和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四個五年規劃和2035年遠景目標綱要》.

A S A N R E P O R T

시진핑 3기의 중국 정치: 중국공산당 집단지도체제의 변화와 함의

발행일 2024년 4월

지은이 이동규

펴낸곳 아산정책연구원

주소 (03176)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1가길 11

등록 2010년 9월 27일 제 300-2010-122호

전화 02-730-5842

팩스 02-730-58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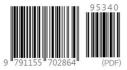
이메일 info@asaninst.org

홈페이지 www.asaninst.org

편집 디자인 EGISHOLDINGS

Copyright © 2024 by The Asan Insitute for Policy Studies ISBN 979-11-5570-286-4 95340 (PDF)





ISBN 979-11-5570-286-4